



12면

무주에서 '삼국시대 봉수' 확인

전주매일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음 11월 2일) 제268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제시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송하진 도지사, 요양원 집단 확진관련 호소문 모든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발동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 전수검사 확대 계획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5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송 지사는 "도내 확진자가 지난 5일 동안 한 자리수로 접어들던 상태에서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현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상황이 심각하고 위중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함께 요양원의 고령환자들을 적절한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가 15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김제 가나안요양원 집단 감염과 관련,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제 가나안요양원, 62명 무더기 확진

총 123명 생활... 인근 애린양로원서도 종사자 1명 양성 판정

전북 김제시 황산면 가나안요양원에 환자 등 6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14일이 요양원의 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환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지금까지 총 6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조사받은 인원은 가운데 종사자 19명, 사회복지무원 1명, 입소자 40명, 가족 2명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08년 설립된 이 요양원에는 노인 입소자 69명, 종사자 54명 등 총 123명이 생활하고 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전날 밤부터 시설 종사자를 우선 전원검사한 뒤 입소자 전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증환자는 치료센터로 보내고 중증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했다. 입소자를 분산해 공공의료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옮길 예정이다.

도 보건당국은 종사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뒤 요양원에 집

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평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역학조사할 계획이다.

도 보건당국은 요양원 종사자와 가족 등 관련자는 출근을 자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 보건당국은 이 외에도 '김제시 용지면에 있는 애린양로원 종사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양로원 소속의 사회복지무원으로 6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가나안요양원에서 일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기자

"이젠 정시 전략이 필요" 내달 7~11일 원서접수

전북교육청, 26~29일 비대면 진학상담실 운영

다음달 7일부터 2021학년도 정시 모집이 시작된다. 정시 원서접수는 내년 1월 7~11일 사이에 이뤄진다.

'코로나 수능'이라는 사상 초유의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가채점 점수로 대략적인 지원 방향을 설정, 오는 23일 통지되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정시에서는 수능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다.

대단 사범대학이나 일부 의과에서는 인·적성 면접고사를 병행 실시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능을 포함한 전형 요소별 반영방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영어는 절대평가로 정시 비중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는 도내 수험생들에게 공교육 차원의 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정시 비대면 화상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비대면 상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대면 상담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화상 상담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에 진학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들은 감염의 위험 없이 정시 전형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며,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상담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16일부터 전북 진로진학센터(<http://jvo.je.ga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전년도 사례를 통한 지원 가능대학 및 학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지며, 정시 모집 대비 대학 입시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가능하다.

단, 1인당 상담 시간은 30분 내외며, 화상상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화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리 지역 수험생들의 대입 지원 경향에 맞는 상담 운영을 위해 진학 경험 이 많은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교사 31명을 운반제로 배치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입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험생들이 비대면 정시 상담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해 상담에 임한다면 내실 있는 상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능 성적은 12월 23일 개별 통지된다.

또한 정시모집에 앞서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27일까지 진행된다.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층원 포함, 최종 등록 마감은 내년 1월 5일이다.

특히 수시 등록 마감 직후 대학별로 수시이월을 포함한 정시 최종 모집인원이 발표된다. 수시이월은 수시모집에서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말한다. 수시이월로 인한 최종 정시 인원 변화는 정시 지원 전략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은 2월 8일~10일이며, 미등록 층원 등록 마감은 2월 19일까지다.

정시모집은 가군과 나군, 다군 3번의 복수 지원 기회가 주어지는데 수험생들은 3번의 기회 중 한 번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고 또 한번은 소신 지원을 나머지 한번은 안정 지원하면 된다.

/정은성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군민에게 힘이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고창군의의회